



태 평 동 작 은 도 서 관

#경기도 성남시 #인건비, 자산취득비 지원

태평동 작은도서관은 원래 사과나무 도서관이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좁은 성남의 골목길에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과나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사과나무 도서관에서 태평동 작은도서관으로

월세를 내면서 사립으로 운영하다가 성남시에서 건물만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과나무 도서관’에서 성남시가 지은 ‘태평동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4년을 지내왔습니다. 태평동은 워낙 골목이 좁고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태평동 사람들은 ‘태평동’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고 관계들이 만들어 지는 마을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평동 작은도서관에게 이처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태평동 작은도서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태평동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 2017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박지선 상근자



▲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로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태평동 작은도서관



▲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모습

태평동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아껴주시는 곳입니다. 지금 태평동 작은도서관은 성남시 건물만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인 쉼터였고 그 전에는 청소년 공부방이었는데, 그야말로 주민들은 이곳이 우범지역이라 생각했대요. 피해야 할 골목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이 들어와서 밝게 공사도 하고 아이들, 엄마들이 끊임없이 저녁까지 있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지나는 주민들이 마음도 편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늘 상근자의 인건비가 문제였어요. 도서관에 상근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계적으로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어른들이랑 눈인사도 하고, 관계도 맺고, 다른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러한 인력으로서, 제가 사랑하는 도서관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왔습니다. 도서관은 둘째 아이가 백일이었을 무렵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8살이 된 지금까지 여기서 제 능력도 많이 자랐고 그래서 도서관에도 받은 만큼의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긴급지원119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도서관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신청하여 도서관 주변 게릴라 가드닝, 벼룩시장, 작가강연, 골목 버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간 조성에 선정되어 실내 공사도 진행하여 멋진 도서관의 모습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이 사업을 진행하며 경기도지사 상을 도서관이, 그리고 제가 하나씩 받았습니다.

인건비 지원 외에 공간적으로도 ‘긴급지원119’라는 이름에 딱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2층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질 때는 사용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원은 프로그램만 되고 에어컨 설치하는 자산취득이라고 안되더군요. 2017년에는 긴급지원119를 통하여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층은 열람실, 2층은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주민들 모두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런 도서관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태평동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지난 몇 년간의 프로그램들, 강의들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실을 많이 다져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인문학 강연, 인문학 기행, 미술관 기행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한명이 이끌어 가는 것보다 영역별로 운영위원을 두고 책임을 높여서,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가지 않게 하자는 운영위원 체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체계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태평동 작은도서관도 사과나무 도서관일 때와 비교하면 낮에 책 읽으러 오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른들의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도서관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이 공기처럼,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꿈을 꾸고,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집 트랜지츠 지은이 | 북라인 | 2012)에 나오는 ‘책을 읽지 않는 국가는 지식수준이 낮다. 지식 수준이 낮은 국가는 가정과 시장과 법정과 투표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확 와 닿습니다. 작은도서관 일은 주민과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느끼시고 곳곳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